

인도양의 실론, 스리랑카에서 보내는 하루



정연주

Winnie-ji@hanmail.net
전남대 문헌정보학과 졸업
연세대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졸업

스리랑카 켈라니아 대학도서관. 아침 8시, 건물을 관리하는 직원이 도서관을 개방한다. 직원들은 출근을 하면 제일 먼저 지하에 있는 사무실에 들어서 출근부에 성명과 출근 시간을 기입한다. 출근부에 근거해서 급료가 계산되기 때문에 한 사람도 지나치는 법이 없다. 오전 근무 중 열시 반 정도에 오전 티타임이 있다. 이 경우에는 직원휴게소나 각자의 자리에서 자율적으로 지키는 티타임으로 차를 마시지 않고 계속 자리를 지키는 직원들도 있다. 11시 45분에는 반가운 점심시간을 알리는 예비종이 울린다. 점심시간인 12시부터 1시까지 도서관 열람실은 문을 닫고, 대출반납서비스도 중단된다. 행정직원들은 한꺼번에 자리를 뜨는 것이 아니라 삼삼오오 짝을 지어 차례대로 점심을 먹는다. 점심메뉴는 맨손으로 먹는 커리와 쌀밥이다. 도서관 입구에서는 이용자들의 소지품을 검사하는 경비원 두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두 사람은 차례대로 점심을 먹으면서 근무를 계속한다. 점심 이후, 오후 근무가 계속되고 2시 30분에는 오후 티타임이 있다. 오후에 마시는 차는 사무실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거의 모든 직원들이 별도의 장소 또는 각자의 자리에서 설탕을 듬뿍 넣은 밀크티를 마신다. 30분 티타임 후에 이어지는 오후 근무는 4시에 마무리되고 각자의 퇴근 시간을 기입한 후 도서관을 나선다. 4시 15분이 되면 직원이 도서관을 닫는다.

켈라니아 대학도서관에는 도서관장님, 5명의 Senior Assist Librarian, 나를 포함한 4명의 Assist Librarian, 의대분관에 1명의 Assist Librarian, 그리고 50명



켈라니아 대학도서관 정문에 선 학생들. 한국어과 학생들이 기쁜 마음으로 모델이 되어주었다.

가량의 일반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다른 스리랑카 일터와 마찬가지로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엄격하고 명확하다. 그 때문에 담당자가 자리를 비우면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일자리 창출이나 고용안정에는 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켈라니아 대학도서관은 사서직과 일반행정직을 Academic Staff와 Non-Academic Staff로 구분한다. 이러한 구분과 대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리랑카 사회의 한 일면을 이해할 필

요가 있다. 스리랑카에는 아직도 계층의식이 강하게 남아있다. 사회 전반적으로는 신분계급에 따른 차별도 남아 있어 관혼상제 때 효력을 발휘한다고 한다. 그러나 계급의식은 외국인이 흔하게 느낄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내가 느끼는 스리랑카의 계층의식은 교육, 재력, 사회적 위치, 인종 등에 따른 것으로 연령과는 상관이 없다. 사서직은 직무에 맞는 대학교육, 또는 상위 학위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일반직원들보다 높은 직위로 여겨져서 더 나은 처우를 받는다. 일반행정직 고용에 대학학위가 필수조건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사서직은 일반직원들에게 우대받는 위치에 있다. 우선 사서직은 일반직원과 다른 출근부를 사용하면서 다른 위치에 있음을 인식시킨다. 그리고 사서들을 위한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그곳에서 사서들은 다같이 점심을 먹고 티타임을 갖는다. 비어있는 시간에도 다른 직원들은 사용하지 않는다. 오후 티타임에 차를 만드는 수닐(Sunil)아저씨만 드나드는데 한 번도 자리에 앉으시는 걸 본 적이 없다.

새로운 직원이 고용되거나 일하던 직원이 그만둘 때에는 인사치레로 오후 티타임에 먹을거리가 제공된다. 이때에는 사무실 공간의 넓은 테이블에 모두를 위한 간단한 다과가 준비된다. 테이블에는 사서선생님들을 위한 의자만 준비되고, 선생님들이 먼저 충분한 시간동안 티타임을 갖은 다음에 일반직원들이 하나둘 테이블로 다가와서 선 채로 티타임을 갖는다. 처음 이 자리에 함께 했을 때, 나는 안절부절 할 수밖에 없었다. 사서선생님들과 내가 먼저 손대고 남은 점심을 건네주는 것도, 나보다 훨씬 나이 많으신 분들도 계신데 세워놓은 채 편하게 앉아 있는 것도 죄송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고 내가 그럴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비춰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물론 이것은 일례일 뿐으로 평상시 꼬박꼬박 경어로

예를 다해주는 일도 있고, 도서관 밖에서도 높이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파견 초기에 선배들이 ‘편하게 살고자 하면 스님이나 높은 사람과 같이 앉아 식사 한번 하면 된다.’ 고 했던 이야기가 농담만은 아니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스리랑카 사람들의 계층의식은 어색하기만 하다.

사서직은 Senior Assist Librarian과 Assist Librarian로 구분된다. 학위종으로 정사서와 준사서로 나누는 우리나라와 달리 학위와 경력으로 명명되는 지위이다. 정확한 학위와 경력 기준은 알 수 없지만, 켈라니아대학교 Senior Assist Librarian의 경력 사항을 살펴보면 스리랑카, 혹은 해외에서 상위 학위과정을 마치고 다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 스리랑카 대부분의 도서관과 마찬가지로 켈라니아대학교 도서관장님은 문헌정보학을 전공하시고 상위 과정의 학위, 장기간의 현장경험, 훌륭한 연구경력을 가지고 계신다. 나에게 관리자보다는 실무자로서의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고 계신다. 항상 활기찬 모습으로 열린 마음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강조하시는 분이시다.

사서직이 인정받는다라는 사실은 반가운 일이지만 그 위치 때문에 이용자와의 면담이나 정보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은 것도 발견할 수 있었다. 켈라니아대학교의 경우, 연속간행물 담당 사서를 제외한 모든 사서들이 지하 사무공간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래서 이용자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 1층에 따로 이용자 질의응답을 위한 사무공간을 마련하고 사서들이 돌아가면서 근무한다는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 이러한 물리적 거리감보다 더 큰 이유는 사서가 접근하기 쉽지 않은 위치로 여겨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스리랑카는 교육의 전 과정이 무상이다. 외국대학의 분교를 제외하고는 모든 정규대학이 국립기관으로 무상교육이 이루어진다. 정부가 대학생들에게 약간의 용돈을 지급하기까지 한다. 그래서 대학의 모든 재산은 국가 소유로 여겨진다. 국가의 재산을 엄격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최근 테러위협이 잦아지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 건물에 경비원이 상주한다. 경비원들은 이용자의 소지품을 점검하고 신분증을 검사한다. 대학구성원만 출입할 수 있고 도서관 이용자들은 도서관에 반납하는 책, 알뜰한 출력물, 필기도구 이외에 개인소지품을 도서관에 반입할 수 없다. 대출한 도서를 가지고 나가는 경우에도 철저히 다시 검



켈라니아대학교는 승가대학교로 시작되었고, 불교 철학 등의 분야에서 손꼽히는 대학이다. 현지 스님 학생들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불교를 공부하러 오는 스님 유학생들이 많다.

사하고 있다. 그래서 도서관 건물과 별도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열람실 목적의 작은 건물이 하나 있지만 열악한 환경으로 이용자가 많지 않다.

도서관 본관 건물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건물설계, 공간배치, 건물운영 면에서 살펴보면 업무동선, 이용자, 자료보존과 이용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더군다나 스리랑카는 덥고 습도가 높다가 연중 몇 달 동안 우기가 지속된다. 또 자외선이 강하기 때문에 도서관 장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스리랑카의 기후특성이 도서관 건물에 반영되지 않은 것도 큰 문제이다.



나의 동갑내기 co-worker, Assist Librarian Tharanga의 결혼식. 한국해외봉사단원들은 각자 마치 짝궁처럼 co-worker를 배정받는다. 신부도 켈라니아대학교에서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학교 도서관 사서이다. 사서선생님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했는데, 나는 사진을 찍느라 함께 할 수 없었다.

스리랑카에는 아직 도서관 외주산업이 발달하지 못했다. 그래서 도서관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 유일하게 도서를 납품하는 서적상들과의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1년에 한번 열리는 스리랑카 도서 박람회에 사서들이 직접 찾아가 서적을 구입한다거나 학술잡지의 결호를 보충하는 등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 예산 면에서도 대학교 예산 안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큰 액수를 배정받지만 모기관에 종속된 도서관의 특성상 새로운 사업의 계획이나 추진에 자유롭지는 않다.

스리랑카에서는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 중 외국에서 학위과정이나 연수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들이 많다. 유달리 교육열이 높은 나라이고 원조 목적으로 외국 정부 등이 이를 후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근무하면서 사서들을 위한 해외연수 정보를 간혹 얻게 되는데, 스리랑카가 상대적으로 수혜기회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스리랑카의 정보환경은 사회기반 시설의 부족에 발목 잡혀있다. 좋은 교육을 받고 돌아와도 적용하고 실천할 수 없는 것이다. 스리랑카에 와서 다양한 관종의 여러 사서선생님들, 그리고 연구자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그때마다 그분들이 사서로서의 직무에 충실하고 변화에 대한 큰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현실에 부딪혀 그 열정과 배움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그저 현상유지의 도서관 경영과 수박 겉핥기식의 연구에 그치는 것이 안타까웠다. 개인적으로는 사회기반 시설의 확충이 정보환경과 정보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파견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땡기열에 걸려 입원한 일이 있었다. 낯설은 이국 땅에서 생소한 병명에 불안하고 고열에 지쳐 있을 때, 문병 오신 사서선생님들께서는 덮어놓고 ‘주치의가 인도인이니 다행이다, 안심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처럼 스리랑카에 살면서 때때로 이곳 사람들의 문화사회적 사대주의를 목도하기도 한다. 주로 영국, 인도, 일본 등을 향해 있다. 스리랑카는 몇몇 강대국들에 의해서 아주 오랫동안 식민통치를 받았는데도 그들에게 적개심을 드러내는 것을 보기 힘들었다. 스리랑카는 마지막 점령국이었던 영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 중 교육체계가 큰 영향을 받아서 영국과 유사한 점이 많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많은 스리랑카 젊은이들이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고 있다. 주변국인 인도의 경우에는 IT 기술의 발달과 할리우드 영화의 인기 때문이다. 그래서 켈라니아대학교에서도 힌디어과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일본은 스리랑카에 대단위 원조사업과 문화정책 등을 통해서 좋은 인식을 얻고 있다.



스리랑카는 학위, 경력 등으로 사서의 직위를 나눈다. 위. Senior Assist Librarian이신 Aberathne 선생님의 사무실 명표. 아래. 내 사무실 앞에 붙여진 명표.



일반직원들이 제본실에서 근무하는 모습이다. 훼손된 자료를 보수하는 일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분위기를 바탕으로 해외경험을 한 상당수의 스리랑카 사회지도층들은 비판의식 없이 다른 나라에 눈높이를 맞추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당면한 문제들 때문에 눈높이에 맞춰 실행하는 것이 어려울 때 곧잘 이것이 스리랑카 시스템이라고 자조(自嘲)한다. 스리랑카 사람들은 높은 자긍심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들의 장래 성장가능성에 대한 신뢰감이 부족한 것 같다.

스리랑카의 정보환경에는 언어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스리랑카 다수족의 언어는 싱할라이다. 하지만 싱할라는 구어와 문어의 문법 체계가 다르고



도서열람실 내부.

방언이 다양하고 철자법이 국어와 달리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 앞서 언급했던 계층의식과 관련해서 싱할라만 사용하는 사람들보다는 영어 사용이 가능한 사람들의 학력, 사회적 위치가 더 높고 좋은 대우를 받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싱할라를 기반으로 한 검색시스템은 전무하고 싱할라로 만들어진 웹사이트도 찾아보기 힘들다. 검색시스템이나 온라인 정보를 요구할 정도라면 영어 사용이 가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전문서적의 경우에도 거의 영어 서적이고 싱할라로 번역된 서적은 상대적으로 적다. 그

래서 빈부의 현격한 차이만큼이나 정보의 격차도 점차 커지고 있다. 영어 정보가 더 고급 정보이기 때문이 아니라, 싱할라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부 국민들만이 정보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다. 영어 사용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사회기반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격차도 무시할 수 없다.

물론 현재 악화일로를 겪고 있는 정치 상황과 갈수록 극심해져가는 빈부격차, 빈곤층의 생활을 돌아보면 정보환경을 위한 사회기반 시설의 확충에 심혈을 기울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은 배부른 투정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스리랑카가 미래 세대를 위한 혜안(慧眼)을 가지고 대처해나가게 되길 바란다.

인도양의 작은 섬나라 스리랑카는 제 등치에 맞지 않게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어오고 있다. 그래도 희망에 무게를 실어 그들의 가능성을 점쳐보고 싶다. 스리랑카는 기록문화의 보고로서, 훌륭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곳에는 변화의 바람에 민감하고, 열정과 자부심이 넘치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들이 있어 든든한 곳이 실론섬, 스리랑카이다. 🇱🇰



서가 앞에 놓인 책상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